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		인도: 김성진 집사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께
*교독문	133번	다 함께
*찬송	즐겁도다 이 날(167장)	다 함께
기도		현윤경 집사
찬송		어린이들
찬송		어른 들
말씀		고명환 목사
-1.사모함으로 따를 부활하신 예수님(마가복음 15장 47-16장 8절)		
-2.참된 신앙생활이란?		
*찬송	부활하신 구세주(162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Happy Easter!

-금주 읽을 성경: 시편 11-17, 로마서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4.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조금 있으면 지난 봄에 떠나갔던 진달래가 또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봄이 왔음을 그것도 날씨로 보아서는 아직 옳도 피지 못할 차가움이 남아있을 때, 그 꽃으로 봄소식을 알려주는 그 진달래는 두고두고 생각해 보아도 이 땅위의 삶의 봄을 예언이라도 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 봄에도 진달래 피는 시절에 그 몸으로 내 슬픔, 내 저주, 내 아픔을 담당하시고자 아무런 대꾸 없이 잠잠히 십자가로 가신 주님이 무척이나 그리워집니다.

그가 이 봄에 그 짙은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진달래의 봄이 아닌 우리 영혼의 참된 부활의 봄으로, 그리고 그가 친히 내 영혼의 영원한 사랑의 내 목자로 오시는 이상 나는 나로 인하여서는 더 이상 울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따뜻한 가슴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지 않겠습니까? 주 없었던 지난 그런 봄이 아닌 정말 진정한 새 봄이 그리고 영원한 봄이 우리 앞에 시작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길 가 보시지 않겠어요?

이 길에서 진정한 평강을 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주정자

따뜻한 봄의 훈풍이
아름다운 꽃들과 초목들의 솟아남으로
파란 초록의 빛으로 다가오지만
쌀쌀한 바람 꽃샘추위가
자연을 움츠리게 하고
사나운 모래 황사가
우리 주변을 어둡게 하여도
봄의 소리 아름다운 산천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 그 아픔,
그 슬픔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은
못 박히시고 찢기시며 상하시고
그 떨시 천대 수모 다 겪으셔도
결단코 그 십자가 다 지시고
그 마음 굽히지 않으시고
견디시고 참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내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발 씻기시며 너희도 형
제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 일러 주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곁에 오신 내 주님!

감사와 감격이 솟구쳐서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이 찾아오고
기쁨의 새날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찬송하며 노래하렵니다.
나의 날이 다하는 날까지
감사하며 따르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예수님!!

나는 행복합니다.

김준관

진정 사랑할 이
나 오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 좁고 험한 세상
사랑스런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한평생 맨몸으로 산다 해도
한분만을 사랑했다면
서럽지는 아니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일들의 날들 속에

걸어가는 길들마다
작지만 지켜갈
사랑이,
그리움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오늘 하룻길,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4월 1일(13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ui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